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시책 개발 박차

금융이자 차액·특례보증 지원하고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상가 시설 개선사업 20개소 확정 현대화 등 골목상권 살리기

광양시가 골목상권의 중심축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맘 편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지역에는 1인 자영업 2500여개 등 총 9500여개, 1만 8000명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가계운영이 어려워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로 골목상권 회복에 나섰다.

시는 광양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을 7월 1일부터 판매에 나섰다.

연말까지 50억 판매 목표로 개인은 월 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본인신분증을 들고 광양시청 내 농협출장소를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명절과 연말에 10%할

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광양사랑상품권은 올해까지 195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자영업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이번 10% 할인판매는 상인들에게 희망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이자 차액 지원사업도 역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79개 업체에 300억원 융자와 9억원의 이자를 지원해 경영안전자금으로 사용하고 도록 했으며, 올해부터는 융자시 본인부담금을 0%로 실행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지원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429개 업체에 97억원을 융자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 소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월 3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가입한 경우 소급지원도 가능하다.

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복리이자 지원,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처음 도입한 상가시설 개선사업은 화장실과 벽지, 간판 등 시설에 대한 1집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난 6월 말 신청접수를 받았다.

신청자에 대해 현장실사와 20개 업소를 확정 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가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광양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의 증명표장 관리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광양 망덕전어,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광양삼진강제집, 광양초남장어, 광양기정떡에 대한 증명표장 등록을 완료하고, 인증식당 지정 등을 통해 지역의 대표음식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양시장은 올해 증명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삼진강다슬기, 궁시, 백계산동백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지역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이 경제도시로 성장하는데 골목상권의 주춧돌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이들을 위한 경영개선 사업발굴과 집중 투자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품질향상으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통 장도(粧刀)의 혼 느껴보세요

무형문화재 박종군 장도장 26~28일 제작 공개행사

광양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박종군 장도장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광양장도전수교육관에서 장도 제작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생'으로 이어지는 장도장 세계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장도의 원형을 보존·전승하고 '장도(粧刀)' 안에 담긴 한국인의 혼과 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행사에서는 보유자와 이수자, 전수장학생들이 장도의 기술을 선보이며, 전통공예 무료체험교육 재능기부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전통문화라는 고루한 이미지를 벗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가까이 있는 친숙한 문화, 즐거운 놀이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장도전수교육관(061-762-4853)으로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박종군 장도장. (광양시 제공)

박종군 장도장은 "이번 장도장 공개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찾아와 아름다운 정신이 담겨있는 한국장도를 감상하고, 장도장과 소통하며 장도의 사실인 광양장도전수교육관에서 전통장도를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장도전수교육관에서는 공개행사 외에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과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장도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차별없는 광양 미래 만들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광양시는 양성평등 주간(7월1일~7일)을 맞아 지난 4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시승격 30주년, 함께하는 행복한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하경희 대한미용사협회 상무위원, 광양청년회의소 정성진, 황명자 광양농협 여성대학 총동창회 회장, 하삼순 광양YWCA 이사 총 4명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 당선자 중 최우수상 정명선씨, 우수상 성옥순씨, 장려상 신현미씨, 캐물나인씨 등

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양성평등 확산으로 차별없는 광양 미래의 100년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부 행사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국인재경영교육원 강은미 대표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숙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아동, 청년, 장애인, 노인, 여성, 남



광양시는 지난 4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성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차별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여성

의 섬세함과 단합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관리 현장실사 실시



지난 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위원 안전관리 현장실사에서 항만위원들과 업무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지민식)는 지난 4일 박홍균 항만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항만위원들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립된 '2019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에 대한 항만 작업장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각 부두(컨테이너 부두, 여수 석탄부두, 포스코 부두 등)별 안전사고 발생 가능 고위험 장소와 안전 취약설비를 집중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항만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

수-광양항 안전 우선 원칙을 확립하는 등 항만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시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홍균 항만위원장은 "이번 안전관리 현장실사를 통해 항만 작업장의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직접 확인함으로써 추진 과제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여수-광양항 항만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환경개선 공동협약체' 15일 출범

20여개 기관·기업·단체 참여

광양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광양환경개선 공동협약체'가 오는 15일 출범한다.

광양환경개선공동협약체는 최근 광양시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광양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6개월 한시 기구로 '광양환경개선 공동협약체'를 출범한다.

광양 대기환경 개선 공동협약체에는 광

양시를 비롯해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민단체협의회, 태인동발전협의회, 광양시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RIST미세먼지연구센터 등 민·관·산·학 등 20여 개 기관,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공동협약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최근 논란이 돼 온 제철소 수재슬래그와 정전사태에 따른 연기 발생 등 근본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동협약체는 당초 지난 3일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1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정전사태로 연기가 됐다.

이들은 시정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1일 발생한 제철소 정전사고 현황과 사고 수습 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 질의 응답을 벌였다.

협의체는 구체적인 활동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그룹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미세먼지센터를 참여해 했다.

백양국 광양대기환경공동협약체 운영위

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협의체는 광양지역의 대기질 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6개월간 대기환경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 민주노총 광양지부 등은 지난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전소 차단기 수리작업 중 발생한 정전사태로 브리더 개방과 함께 다양한 먼지와 유해물질이 무방비로 유출됐으며 민간 합동조사를 통한 특별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